

다문화가정을 위한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연구*

-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 -

정 희 정**

논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자녀를 둔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어머니들이 이질적인 문화에서 자녀를 키우며 겪는 갈등과 스트레스를 극복하여 한 인간으로서의 개인적인 성장과 개발을 도모하고, 자녀의 바람직한 양육에 필요한 지식 및 태도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상담 형태의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 거주 하면서 S 교회에 다니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어머니 8명을 소그룹으로 구성한 후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8주간 실시하였고,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는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 가정 어머니들의 자녀양육 스트레스는 감소하였다. 둘째,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 가정 어머니들의 자녀양육행동은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 셋째,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 가정 어머니들의 부모역할 만족도는 증가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첫째, 한국 교회는 전도와 교회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북한이탈주민 사역에서 그들의 본질적인 마음의 변화 및 신앙에서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체제를 수립해야 한다. 둘째, 남한에서 자녀양육을 하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셋째, 기독교는 남한과 북한의 극단적인 두 사상의 대립을 해소하고 이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적인 사상으로 제시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기독교적인 접근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남한과 북한의 사상적 통합을 연구하는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북한이탈주민, 새터민, 다문화가정, 기독교 부모교육, 자녀양육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1-35C-B00318).

** 총신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

2013년 5월 3일 접수, 6월 22일 최종수정, 5월 30일 게재확정

I. 서론

오늘날 현대 사회는 세계화의 영향과 국제 교류의 증가로 인해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세계화의 특성 중 하나는 국가 간의 인구 이동으로, 오랜 세월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우리나라도 다양한 문화권으로부터의 이주민이 늘어나면서 다문화 가정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가정(multicultural family)이란 서로 다른 민족이나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으로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근로자 가정,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포함된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정의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범위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그리고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이다. 즉, 다문화가족이란 국제결혼 등을 통해서 서로 다른 국적, 인종의 상대를 만나 결합한 가정인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 가정을 의미하지만, 최근에는 북한이탈주민과 이주노동자들이 꾸린 가정으로 그 의미가 확대 해석되고 있다. 이중 북한이탈주민 가정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하여 새로운 터전을 잡은 북한 주민으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다문화가족의 범주에 북한이탈주민을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는 국적법 제4조이다. 국적법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의거한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즉 다문화가정은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근로자, 결혼이민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등을 포함해 이들이 새롭게 구성한 가족 모두를 포함한다(하선자, 2013).

분단 이후 북한을 탈출해서 국내에 들어온 북한 주민들은 관련법 제정과 함께 시기적으로 다르게 불려왔다(강재희, 2010). 처음에는 ‘월남귀순용사’로 불리다가, 1962년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이 제정되면서 ‘귀순자’로, 1993년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이 제정되면서 ‘귀순북한동포’로,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북한이탈주민’으로 불려왔다. ‘북한이탈주민’이라 함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 북한을 벗어나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북한주민을 칭하는 용어이다. 따라서 국내에 입국하여 정부의 보호대상자가 된 자 뿐 아니라 재외공관의 실제적 보호를 받고 있는 국외 거주자를 포함하는 용어이다. 2005년 1월부터 통일부가 탈북자나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가 주는 거부감을 완화하

기 위하여 여론조사를 거쳐 “새로운 터전에서 삶의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선정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는 법률적인 용어로 ‘북한이탈주민’을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은 ‘새터민’ 용어에 대해 탈북자의 정체성을 지우고 북한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정치적 목적을 뺀 경제적 이주민임을 강조한다는 이유로 반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최근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별칭으로 ‘탈북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등, 현실에서는 탈북자에서부터 북한이탈주민, 새터민, 탈북민 등이 복잡하게 혼용되고 있다(중앙일보, 2013. 5. 14).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문맥상 탈북자, 북한이탈주민, 새터민 등의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할 것이나 가급적 법적으로 공식 규정된 ‘북한이탈주민’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현재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이만명 이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주목할 만한 특징은 가족단위로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많다는 것인데, 그에 따라 학령기 연령의 북한이탈주민 아동·청소년들의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증가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만큼 이들의 한국 사회 적응과 관련한 문제들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남한사회에 힘겹게 적응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볼 때 북한과의 통합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 수 있다(김지현, 2008). 독일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통일이란 단지 외적인 물리적 통합뿐만 아니라 내적인 심리적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인 통일교육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다문화주의와 평화교육의 관점에서도 매우 필수적인 부분이다.

다문화가정의 증가와 함께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녀양육과 자녀발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결혼을 통해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대부분이 여성이고 이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의 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박영아, 2010). 일반적으로 북한생활과 탈북과정에서 기아, 폭행, 질병 등 극단적 어려움을 경험한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은 남한으로 이주해 오게 되면서 남한생활에 대한 적응이 채 이루어지기도 전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이 겪은 끔찍한 경험들은 이들로 하여금 남한의 지역사회 삶을 유지하기 어려울만큼 심리정서적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엄태완, 2012). 이처럼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 가정 어머니들은 언어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있으며 남한에서의 자녀양육에 대한 사전정보를 전혀 얻지 못한 채 자녀

양육을 하고 있다(조미영, 2011).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스스로 문화적 적응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모됨의 준비와 사전지식 없이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때 자녀양육과 관련한 심리적·정신적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며, 이러한 스트레스는 그들이 직면해있는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는 원인이 된다(Sigel & McGillicuddy-Delisi, 2002).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스트레스는 매일 반복되고 누적되면 부모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녀의 행동에 대한 부정적 지각과 그에 따른 강압적인 부모 반응을 일으켜 역기능적이고 부당한 양육행동을 하게 만든다(박응임, 1995; 안지영, 2001; 전춘애·박성연, 1998). 또한 부모의 자녀양육 스트레스는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만족도와도 관련이 있다(Crnic & Greenberg, 1990). 부모역할 만족도란 부모역할 수행과정에서 느끼는 만족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녀양육에서 부모가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부모역할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부모역할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녀를 양육하면서 치러야 할 경제적 부담, 자유의 박탈, 훈육의 어려움을 더 잘 극복한다고 볼 수 있다(조복희·현온강, 1994).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어머니들도 부모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줄이고 바람직한 자녀양육행동을 하며 부모역할에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부모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정의 한국사회적응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노력들은 다각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교회는 다문화사회 지원정책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에 입국하게 되면 보안관계기관인 ‘대성공사’에서 가족과 함께 조사를 받은 후 ‘하나원’에 입소하게 된다. 하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자 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체계적인 국내 정착지원을 위해 1999년 7월 8일 경기도 안성에 개원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이다. 북한이탈주민은 이곳에서 약 2~3개월 동안 지내면서 국내 정착을 위한 지원 교육을 받는다. 즉 북한이탈주민들의 거주지가 확정되고 남한에서의 신분이 만들어지는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남한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받고 사회적응훈련과 직업교육 등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하나원의 프로그램으로는 남북한 체제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남북통합교실’ 프로그램과 초기 사회정착을 돕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입소 후 약 2개월간 심리·정서적 안정, 문화적 이질감 해소 및 우리 사회의 기본적 이해, 직업·진로지도, 실생활 체험 등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

고, 교육기간 중 기초적인 직업훈련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남자교육생에게는 운전교육을, 여자교육생에게는 봉제, 조리, 손뜨개 등의 교육을 실시한다(김정인, 2003). 그러나 하나원의 프로그램 만족도를 분석 및 평가한 김정인(2003)의 연구에 의하면, 하나원의 생활이 굉장히 폐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운영 프로그램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교육의 내용이 상황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초기적응에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었다(김미정, 2011). 반면, 하나원에는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의 종교실이 마련되어 있어 여가시간에는 종교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들은 하나원 출소 시 약 90%는 개신교를, 5%는 천주교를, 5%는 불교를 선택한다(한은주, 2012). 이처럼 종교는 북한이탈주민과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될 수 있으며, 특히 다수가 선택하는 개신교 교회는 북한이탈주민을 이방인이 아닌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교회와 연결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볼 때 교회를 통해 남한에서의 삶의 적응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의 종교활동에 관한 한 조사에 의하면 이들은 마음의 안정과 도덕적 삶을 살기 위한 이유로, 또한 남한 사람들을 더 알고 경제적 지원 등 필요한 도움을 얻고자 교회 등 종교기관에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병호외, 2006). 경제적 지원과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 사역을 하는 교회들을 보면 대부분의 교회가 일정액의 생활비를 매달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물질적 지원은 교회의 출석이 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문제는 일부 교회를 제외하고는 물질적 후원과 신앙지도가 병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은 재정지원 때문에 교회에 나가는 경우가 많은 반면, 기독교 신앙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체계화된 신앙교육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북한이탈주민 출신 한 목회자는 현재 입국해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신앙이 대부분 나태해졌다고 하면서 국적 취득으로 인한 신앙의 나태함과 물질로 인한 복음의 변질이 그 원인이라고 밝혔다. 대형교회들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한달에 20만원에서 수십만원씩 돈을 주면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신앙생활이 아닌 돈을 받기 위해 교회로 몰려들고 있다고 개탄하였고, 또한 한국교회는 일방적인 주입식의 복음을 전할 뿐이어서 이는 오히려 북한이탈주민들이 신앙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신은철, 2008; 뉴스앤조이, 2010. 12. 18).

부모교육의 형태와 관련하여 Powell(1986)은 부모들이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들의 신

넘과 갈등을 다루는 변화 과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서종남(2010)은 다문화가정 여성들의 경우 그들이 한국 사회에서 느끼는 사회적 단절감과 또 그들의 자녀들이 겪고 있는 정체성 혼란 및 학교생활의 부적응의 문제를 돕고 문화적 이질감 및 차별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상담 프로그램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상담 형태의 부모교육은 일반 부모들보다 자녀양육에서의 외로움이나 두려움을 더욱 느낄 수 있는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에게 적합하며 그들이 이러한 부모교육을 통해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면서 만족감을 느끼고 서로에게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녀를 둔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어머니를 돕기 위한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질적인 문화에서 자녀를 키우며 겪는 갈등과 스트레스를 극복하여 한 인간으로서의 개인적인 성장과 개발을 도모하고, 자녀의 바람직한 양육과 교육에 필요한 지식 및 태도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상담 형태의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회 및 기독교기관이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회 사역은 장차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북한과의 정신적 통일 및 복음 전도와 연결되는 것으로, 현재 남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영향력이 매우 커질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가적·교회적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위한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은 어떠한가?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위한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 자녀양육행동, 부모역할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이론적 배경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수는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12월(잠정) 통일부 집계에 따르면 총 24,614명으로 2006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2천명에서 3천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한국에 입국하고 있다. 2000년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 급증 원인은

탈북자들이 평균 4-5년의 해외 체류 중 정착하기 힘든 한계를 느끼는 상황에서 보다 나은 삶을 찾아 한국으로 입국하려는 시도에 있다. 또한, 제 3국내 한국공관에 들어간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한국당국의 지원 및 한국에 기입국한 가족의 입국지원 활동 증가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행을 희망하는 경우,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하에 국내 법과 UN 난민협약 등 국제법에 부합되게 이들을 보호수용하고 있다(박영희, 2012). 특히 70% 이상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북한 내에서 여성이 비교적 감시를 피하는 것이 쉽고 중국에서도 혼인의 형태로 거주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1>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12. 12월 입국자기준)

구분	1998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남(명)	831	565	511	472	624	423	512
여(명)	116	479	632	810	1,272	959	1,510
합계(명)	947	1,044	1,143	1,282	1,896	1,382	2,022
여성비율	12%	46%	55%	63%	67%	69%	75%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남(명)	571	608	671	589	797	402	7,576
여(명)	1,977	2,196	2,258	1,813	1,909	1,107	17,038
합계(명)	2,548	2,804	2,929	2,402	2,706	1,509	24,614
여성비율	78%	78%	77%	75%	70%	72%	69%

자료: 통계청(통일부), 2012. 12

또한, 가족동반 입국이나 가족연쇄 입국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구성 연령층이 폭넓어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연령별 유형을 살펴보면 <표2>와 같다.

<표2> 북한이탈주민 연령별 유형 (~'12. 7월 입국자기준)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계
누계(명)	988	2,793	6,541	7,359	3,898	1,209	1,091	23,879
비율(%)	4	12	27	31	16	5	5	100

자료: 통계청(통일부), 2012. 12

오늘날 남한 사회로 유입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연령은 20-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북한에서 태어나 한국에 입국한 아동·청소년의 비중은 2012년 7월 기준 988명으로 16%에 이른다. 앞으로 젊은 층의 북한이탈주민이 가정을 이루어 한국에서 자녀를 출산한다고 했을 때,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의 수는 더 증가될 전망이다.

한편, 2000년대 이전 군인, 공작원 출신 등의 유입과 달리 현재에는 노동자 등 낮은 사회적 계층들의 유입이 늘었다. 2012년 7월까지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재북 직업별 유형을 살펴보면 무직 부양이 50%, 노동자가 38%, 관리직이 2%, 전문직이 2%, 예술체육이 1%, 봉사분야가 4%, 군인이 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재북 학력 분포를 살펴보면 인민학교 출신이 6%, 고등중학교 출신이 70%, 전문대 출신이 9%, 대학 이상이 8%, 기타 7%로 나타났다(통일부, 2012. 7).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데, 상기 법률에서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주민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그 제정 목적을 밝히고 있다(www.unikorea.go.kr).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 지원을 보면 먼저 초기입국단계에서는 보호대상자의 보호신청, 통보, 임시보호조치 및 사실관계 조사, 보호결정의 순서로 진행된다. 그 다음 시설보호단계에서는 탈북동기와 간첩여부 및 중국 조선족이 아닌 진짜 탈북자임을 확인하는 철저한 신원조사를 받게 되고, 다음으로 통일부가 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 교육시설인 하나원에 입소하여 3개월간 문화탐방, 생활체험 등 사회적응교육을 받고 남한 사회에 첫 발을 디딘다. 거주지 보호 및 사후지원 단계에서는 거주지 배정과 함께 정착지원금 및 주택, 취업, 의료, 교육 등의 전 분야에서 걸친 정착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을 하게 된다. 정부에서 나오는 정착금은 단독 입국 1인 기준으로 초기 지급금 300만원, 2년 동안의 분할 지급금 300만원, 주거지원금 1300만원 등 총 1900만원이고, 가족과 함께 입국했을 경우는 1인당 비용이 감소한다. 이외 직업훈련 장려금이나 자격취득 장려금, 취업 장려금 등 실질적 경제활동을 촉구하기 위한 보상금들이 책정되어 있다(www.unikorea.go.kr). 그러나 이러한 지원 대책도 실제 집행과정에서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데는 미흡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하나원 출소시 받게 되는 초기 정착금은 탈북비용 명목으로 탈북브로커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정착 북한이

탈주민들은 빈손으로 남한생활을 시작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안인희, 2012). 정부는 탈북브로커 문제가 심각해지자 초기 정착금을 줄이고 이후에 월정액으로 정착지원금을 나눠주기도 하지만 브로커의 부작용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한국일보, 2008. 9. 7).

북한선교에 열의를 가지고 북한선교를 추진해 오던 한국교회는 북한의 잇따른 대홍수와 기근으로 인한 식량난으로 대거 탈북자들이 생겨나자 이들에 대해 커다란 관심을 가져왔다. 대표적으로 한기총의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는 평화통일과 북한복음화 사업으로써 북한교회 재건운동, 북한동포돕기 운동, 자유이주민 정착지원, 남북한 교회 선교협력, 탈북난민 보호운동, 통일선교정책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관련 활동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정착을 지원하는 ‘자유이주민 정착지원 본부’가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 ‘자유이주민 정착지원 본부’는 1998년 12월에 발족하여 최근까지 매월 일정한 경제적 지원과 가족결연, 교회와의 신앙결연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돕고 있다(오선목, 2008).

개 교회 차원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몰려있는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몇몇 대교회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및 선교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오선목, 2008). 영락교회는 일찍부터 북한선교회를 설립하여 북한선교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1998년에 설립된 북한선교센타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대상 선교활동과 정착지원을 하고 있으며, 하나원 하나교회에 목사 한 명을 파송하여 물품지원, 예배지원 등을 하고 있다. 영락교회에 출석하는 북한이탈주민은 200여명에 달하며, 그들은 매월 20만원의 생활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능력을 배양해주는 교육사업으로 2002년 2월 ‘굿피플대학(현재 자유시민대학)’을 설립하였다. 교육내용으로는 남북한의 정치, 사회, 역사 비교와 생활 및 법률 교육, 심리안정 교육, 창업 및 취업교육 등을 실시하여 전인적인 교육이 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매 기수마다 굿피플대학을 졸업하는 북한이탈주민은 50-60명 정도로 교회는 이들에게 매월 20만원의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다. 새문안교회는 1999년부터 남한사회 정착과정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구제와 선교를 하고 있다. 교회 안의 북한선교부원과 북한이탈주민과의 1:1 멘토링을 결성하여 성경공부를 통한 신앙훈련을 하고 있으며, 매월 기도회와 더불어 교제의 시간을 가지며 통일대비 북한선교사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약 14명 정도의 북한이탈주민이 출석하고 있으며 교회는 이들에게 매월 1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서울교회는 2004년부터 교회학교 안에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성경공부반 디아스포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25-30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이에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교회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 정착에 있어서 신앙의 정착을 우선순위로 정하여 지속적인 심방과 기도와 성경공부를 진행하며 생활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온누리교회는 2004년부터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선교와 자체 성경공부반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10-15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출석하고 있으며 생활보조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매주일 성경공부를 비롯하여 건강, 직장, 사회적응훈련, 문화체험에 역점을 두어 모임을 갖고 있다. 이외 몇몇 지역 교회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을 제자화하여 통일시 선교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목표를 두고 교회 및 생활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사역과 관련하여 몇몇 교회를 제외한 대부분 한국 교회들은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적인 요구, 즉 의식주의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교회 출석을 조건으로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북한이탈주민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첫째,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 및 그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정서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분석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들이다. 구체적으로 스트레스, 우울, 사회적지지 등 일반적인 특성이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연구(김경미, 2012; 박선아, 2001; 박정아, 2007; 박중윤, 2009; 서주연, 2006; 장경영, 2009; 주은주, 2010; 채나리, 2012; 최광훈, 2012; 최동문, 2009),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관련 연구(강숙정, 2009; 김나연, 2012), 그리고 특히 북한이탈주민 여성을 중심으로 그들의 우울 및 진로에 대한 연구(박정란, 2006; 엄태완, 2012) 등이 있다. 둘째, 다음 세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및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다. 구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청소년들의 남한 사회 부적응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다루는 연구(김중국, 2008; 권부균, 2010; 노용구, 2012; 박영호, 2010; 박은미, 2009; 서보람, 2007; 유동현, 2011; 황정숙, 2009), 북한이탈주민 청소년들의 학습과 관련하여 실태분석이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나현희, 2010; 장주영, 2009),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의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접근적 연구(김보영, 2008; 이혜경, 2003; 정영환, 2009),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유아 및 아동들을 대상으로 유치원 및 학교 적응에 관한 연구(고은희, 2010; 강재희, 2010; 박병규, 2009) 등

이 있다. 셋째,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부모 및 자녀와 관련된 연구들이다. 구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상담모형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김미정·정계숙, 2007; 김영희, 2006; 김현아·정성란, 2008; 문은주, 2012; 박정란, 2009; 박주현, 2010; 안연진, 2002; 조혜영, 2013; 최대현·이인수·김현아, 2007) 등이다. 이외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을 돕는 정책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관련 연구들이 있다(김선화, 2011; 박내석, 2003; 박희도, 2012; 이양호, 2009; 전용현, 2005). 한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기독교 관련 연구들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복지 연구(강경미, 2008; 김훈, 2005; 조원선, 2006),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정에서의 교회의 역할을 다루는 연구(곽연실, 2008; 김영식, 2010; 이미선, 2011; 장동신, 2006), 북한이탈주민을 통한 북한선교 관련 연구(강태용, 2013; 김훈, 2005; 박순영, 2012; 박영천, 2011; 심우구, 2010; 오종모, 2005; 윤현기, 2004), 북한이탈주민 청소년들의 문화적 통합을 위한 기독교 교육적 접근 연구들(김규식, 2012; 김지현, 2008)과 기독교인 탈북자의 가정 생활을 탐색하는 연구(김진순, 2011) 등이 있다.

이처럼 일반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청소년과 유아 및 아동에 관심을 두고 그들의 학교적응 및 부모자녀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연구들이 많이 시도되고 있으나, 기독교 관련 분야에서는 이들에 대한 연구를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교회들의 활발한 북한이탈주민 사역에 비하면 학문분야에서의 연구는 한국 사회 적응과 관련한 교회의 역할, 상담, 복지 및 선교에 치중되고 있어 다양한 영역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부모-자녀 관계에 초점을 두고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구조화된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본 연구는 매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자녀를 둔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어머니를 돕기 위한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녀양육 스트레스, 자녀양육행동, 부모역할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1. 프로그램의 개발

(1) 프로그램의 개발과정

본 연구는 김정원(1999)이 Tyler, Walker, Taba, Goodlad, Schwab 등 여러 학자들에 의해 개발된 각각의 체계적 모형들에서 강조하는 양상들 중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뽑아 만든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정에 근거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제안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과정은 교육목표 설정, 교육내용의 선정 및 조직, 프로그램 실시, 그리고 프로그램 평가이다. 이를 기초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어머니를 돕기 위한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는 문헌고찰을 통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특성 분석이다. 그 결과 대부분 부모의 학력은 고등중졸로 통일부에서 제시한 통계자료와 일치하였다(통일부, 2012. 7). 생활경비의 출처는 주로 정부에서 주는 정착금 및 보조금으로 충당하거나 부모님이 직장생활을 하여 번 돈으로 충당하였으며, 부모의 직업은 아버지가 단순노무나 서비스직이었고 어머니는 서비스업이 가장 많았다. 따라서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 가정은 언어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있으며 가정생활이나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를 주로 TV나 같은 북한이탈주민들에게서 얻을 뿐 남한에서의 실제적 삶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외적 특성 외에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다른 다문화가정에 비해 갖는 심리적 특성이 있다. 모든 다문화가정이 한국 사회에서 적응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과 함께 자녀들의 소외나 열등감에 대한 고민들은 일치하는 반면, 북한이탈주민은 탈북과정에서 그들이 겪어야 했던 극심한 공포의 경험으로 인하여 대부분이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상태에 있었다. 특히 부부간의 갈등과 부모와 자녀세대간의 갈등 및 대화의 단절로 인한 가족 내의 갈등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는 세대별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며 부모와 자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및 성공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단계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위한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조사이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형식을 구성하기 위해 기독교 단체에서 실시하는 행사에 참석한 43명의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약 94%에 해당하는 부모들이 기독교 부모교육을 포함하여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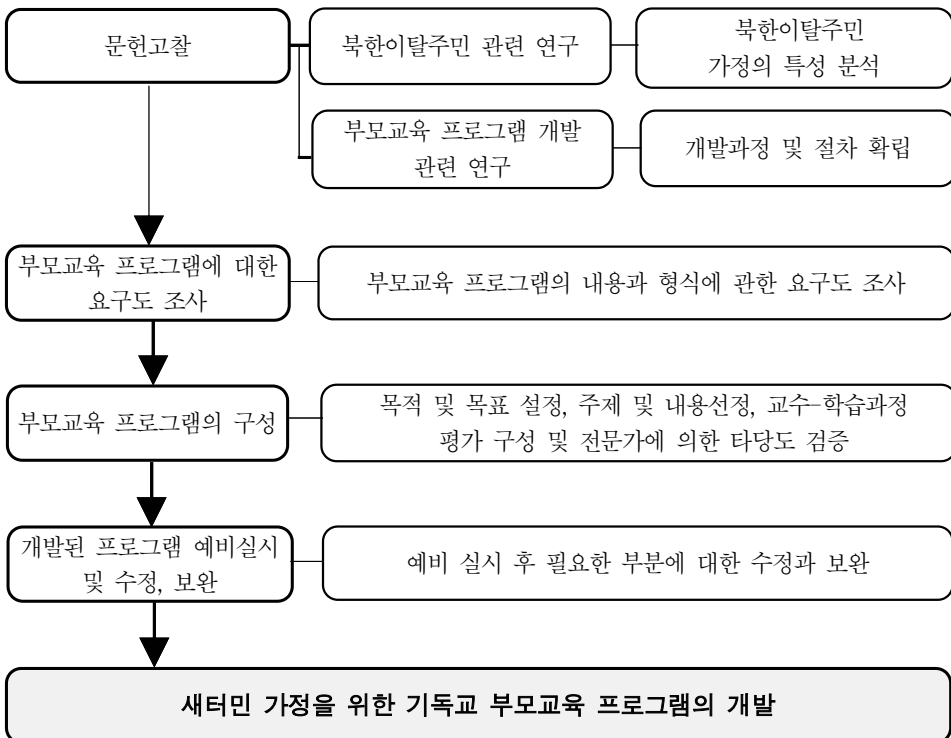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려운 점은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어렵다(84%), 자녀가 정서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 내 탓인 것 같아 괴롭다(72%), 교육정보가 너무 다양하여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럽다(63%), 자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 때문에 힘들다(52%), 자녀양육에 대해 상의할 사람이 없다(47%), 자녀양육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힘들다(34%)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요구도는 성경적인 대화기법(95%),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성경적인 갈등관리(83%), 성경적인 훈육법(73%), 성경적인 자녀이해(68%), 성경적인 부모의 역할(57%), 성경읽기와 기도 및 찬양 지도(48%)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교육의 방법으로는 자녀양육에 대한 상담 및 토론(67%), 전문가의 자녀교육에 대한 강연(53%), 가정통신문(32%)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단계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위한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이다. 문헌고찰과 요구도 조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위한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확정하였다. 먼저 문헌고찰을 통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특성 분석과 요구도 조사를 통해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부모들이 한국사회 적응 및 자녀와의 세대간 갈등으로 인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상태에 있으며,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갈등관리 및 상호작용기술을 배울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였고,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그들을 돕는 분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중요함을 이해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심리적 문제들을 다루고 구체적인 자녀양육의 상황에서 그들을 돕기 위해 상담형태로 부모교육이 필요함을 인식하였는데, 북한이탈주민들도 자녀양육에 대한 상담 및 토론의 부모교육의 형태를 선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프로그램의 목적을 북한이탈주민 부모들이 직면하고 있는 심리적 갈등과 스트레스 상황을 인식하고 그 원인을 이해함으로써,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경험하여 성경적인 방법으로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구체적인 목표로는 자녀양육 스트레스로 인해 느끼는 부모의 감정 및 욕구를 발견하기, 자녀양육의 목표를 성경적인 목표로 변화시키고 성경적인 자녀양육법 실천하기,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자녀양육에서 깨닫기이다. 교수-학습과정은 도입에서 친밀감 및 신뢰감형성과 토의활동, 전개에서 주제 강의 및 상담활동, 종결에서 기도 및 과제 부여로 구성하였으며 평가는 과정평가 및 총괄평가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처럼 본 연구는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 설정, 주제 및 내용 구성, 교수-학습과정, 그리

고 평가의 기본 구조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배열 및 조직하여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위한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이후 기독교교육 전문가와 북한이탈주민 사역 관련 담당자에 의한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네 번째 단계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위한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예비 실시 및 수정, 보완이다.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부모를 대상으로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예비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수정과 보완을 하였다.

다섯 번째 단계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위한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 최종 개발이다. 이와 같은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위한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정을 살펴보면 [그림1]과 같다.



[그림1]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위한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과정

(2) 프로그램의 내용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어머니들을 돕기 위한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 부모들이 직면하고 있는 심리적 갈등과 스트레스 상황을 인식하고 그 원인을 이해함으로써,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경험하여 성경적인 방법으로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를 기초로 실제 구성된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매 회기 주제와 내용을 살펴보면 <표3>과 같다.

<표3>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매 회기 주제 및 내용

회기	부모교육 주제	부모교육 내용
1회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 소개 및 동기부여	프로그램의 내용소개 및 참여동기부여
2회	부모-자녀관계에서의 자녀양육 스트레스	남한에서의 자녀양육, 자녀양육 스트레스 영역 선택 및 이유, 자녀양육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반응-구체적인 말과 행동
3회	자녀양육 스트레스상황에서 느끼는 부모와 자녀의 감정	자녀양육 스트레스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 및 이유,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의 학교 적응 문제, 자녀양육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자녀의 감정 추론
4회	자녀에 대한 부모의 목표	성경적인/비성경적인 자녀양육의 목표, 남한과 북한에서의 자녀양육의 목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욕구 선택 및 이유
5회	자녀양육에서의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자녀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소원에 대한 생각, 부모의 욕구에 대한 재고려, 자녀양육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
6회	마음의 변화를 통한 자녀양육의 새로운 목표	자녀양육의 새로운 목표, 자녀양육에서 필요한 성령의 열매
7회	성경적인 자녀양육방법	선택한 성령의 열매와 관련한 새로운 자녀양육행동의 목록 작성, 실천여부
8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양육	자녀의 감정과 욕구에 대한 고려, 자녀와의 관계에서의 새로운 결심

지금까지 이루어진 기독교 관점에서의 부모교육은 기독교 가정에서의 자녀교육의 중요성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기독교인 부모의 정체성과 교육적 사명을 일깨우고 가정과 교회를 연계하는 부모교육의 방안들을 제시하는 등 주로 자녀의 신앙교육과 기독교적 부모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대부분으로 기독교인 부모들이 자녀양육을 하면서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정희정, 2009).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들이 자녀양육상황에서 느끼는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통해 기존의 부모교육으로는 다루기 어려웠던 부모 내면의 문제들을 상담을 통해 다루고, 이 과정에서 인간의 한계성을 깨달아 절대자에 대한 의존의 필요성을 인식함으로써 신앙적인 삶을 살도록 격려하는 주제로 구성하였다.

2. 효과성 검증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자녀를 둔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어머니 8명이다. 이들은 모두 서울시 소재 S 교회를 다니고 있으며,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동의하였다. 북한이탈주민 관련 연구의 경우 연구대상자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한계성과 특히 북한이탈주민 부모의 경우 자신들의 신분노출로 인해 자녀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수 있으리라는 걱정으로 인하여 많은 연구 참여자들을 표집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과 8-15명 정도의 소집단으로 이루어진 부모교육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연구들(Heinicke, Carlin, & Given, 1984; Kagan, Neville, & Rustici, 1993; Kelly, 1981; 민숙영, 2006)에 따라 본 연구의 부모교육 집단 크기를 8명의 소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어머니들의 배경을 살펴보면 <표4>와 같다. 신분보장을 위한 윤리적인 문제로 연구참여자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한편, 통제집단은 같은 교회에 소속된 실험가정의 어머니와 생활수준이 비슷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어머니 8명으로 구성하였다.

〈표4〉 연구 참여자의 배경

이름	나이	직업	자녀연령	남한거주기간	결혼유형	신앙경력
KYA	38	재택부업	14년 3개월	4년 2개월	사별	11년
KHS	36	식당종업원	10년 8개월	2년 4개월	기혼	2년
LHY	37	식당종업원	10년 4개월	3년 8개월	별거	3년
PSA	35	회사원	6년 3개월	1년 6개월	사별	1년
KYA	25	대학원생	2년 3개월	2년 7개월	미혼	2년
LHG	34	전업주부	1년 5개월	1년 2개월	기혼	1년
KYJ	33	전업주부	4년 7개월	3년 5개월	기혼	3년
PJS	38	식당종업원	11년 2개월	5년 4개월	기혼	5년

(2) 측정도구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어머니를 돕기 위한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은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 자녀양육행동, 그리고 부모역할 만족도의 세 영역에서 이루어졌고, 본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프로그램 평가지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매 회기별 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전사하였다.

① 자녀양육 스트레스 척도

자녀양육 스트레스 척도는 Abidin(1990)이 개발하고 정희정(2009)이 기독교인 부모에게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부모의 특성(우울, 애착, 유능감,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기인한 스트레스)과 자녀의 특성(적응성, 수용성, 활동성, 기분) 2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졌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양육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였다. 본 척도의 구성타당도 검증결과 높은 타당도를 나타냈으며, 신뢰도는 .88이다.

② 자녀양육행동 척도

자녀양육행동 척도는 박성연과 이숙(1990)이 개발한 척도를 정희정(2009)이 기독교인 부모에게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마음과 행동, 환

경의 영향, 권위와 순종, 훈육과 훈계, 일관성, 모범, 그리고 대화의 7개 하위영역에 따라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졌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 양육행동이 긍정적임을 의미하였다. 본 척도의 구성타당도 검증결과 높은 타당도를 나타냈으며, 신뢰도는 .87이다.

③ 부모역할만족도 척도

부모역할만족도 척도는 연미희(1994)가 개발한 척도를 정희정(2009)이 기독교인 부모에게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역할 수행 10문항과 부모-자녀 관계 10문항의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역할만족도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본 척도의 구성타당도 검증결과 높은 타당도를 나타냈으며, 신뢰도는 .85이다.

(3) 실험절차

본 연구는 서울시 OO구에 소재한 S교회의 협조를 얻어 실시되었다. 이 연구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역자와 교회에 수없이 접촉하였으나 신분노출 및 연구에 대한 거부감 등의 이유로 계속 거절을 당하였다. 최종적으로 S교회 북한이탈주민 사역 담당자와 연결됨으로써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되었으나 역시 신분노출 및 직장으로 인한 시간의 제한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2012년 11월부터 12월까지 총 8주간 실시되었다.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8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1주일에 1회 1시간 30분씩 실시되었다. 교육시간은 직장을 다니는 어머니들을 고려하여 저녁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진행되었고, 교육장소는 북한이탈주민 특성상 한 곳에 모여살기 때문에 이동의 편의를 고려하여 한 북한이탈주민 가정으로 정하였다. 사정이 생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어머니들은 본 연구자가 따로 집에 가서 그 회기를 보장하였다.

매 회기 프로그램은 주제 강의와 연결토의로 구성되었는데, 주제강의를 듣고 난 후 북한이탈주민 부모들은 토의를 통해 자신의 경험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면서 자녀양육에서의 서로의 고민을 공유하였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어머니를 대상으로 사전검사를 실시하였고,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끝나

는 날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절대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각 회기가 진행되는 동안 프로그램 진행 내용을 녹음하였다.

(4) 자료분석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어머니를 돕기 위한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자녀양육 스트레스’, ‘자녀양육행동’, ‘부모역할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비교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두 집단의 어머니 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두 집단의 사전, 사후 검사를 가지고 t-test를 실시하였다. 모수 검정인 t-test의 경우, $N > 30$ 이상이면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이룬다고 가정하여 바로 실시할 수 있으나(성태제, 2007), 본 연구는 대상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두 변수 값의 차이들이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을 만족하는지 보기 위해 정규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5>에 제시되어 있다.

<표5> 정규성 검정 결과

변인	N	M	SD	Kolmogorov-Smirnov		Shapiro-Wilk	
				통계량	유의확률	통계량	유의확률
평균차이	8	.57	.255	.278	.162	.867	.214

사전검사의 평균과 사후검사의 평균의 차이를 새로운 변수로 하여 정규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성이 .05이상으로 나타나 모집단이 정규분포가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어머니를 돕기 위한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자녀양육 스트레스, 자녀양육행동, 그리고 부모역할 만족도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연구의 결과 및 해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미친 효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어머니를 돕기 위한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 실시 전후의 자녀양육 스트레스 변화를 살펴보면 <표6>과 같다.

<표6> 자녀양육 스트레스의 사전사후 효과검증

변인	집단	<i>N</i>	<i>M</i>	<i>SD</i>	<i>t</i>	
자녀양육 스트레스	사전	실험	8	3.73	.45	-.727
		통제	8	3.83	.48	
	사후	실험	8	2.95	.24	-8.401**
		통제	8	3.83	.40	
부모의 특성	사전	실험	8	3.93	.53	-.705
		통제	8	4.08	.50	
	사후	실험	8	2.94	.15	-10.511*
		통제	8	4.10	.32	
자녀의 특성	사전	실험	8	3.53	.24	-.430
		통제	8	3.58	.28	
	사후	실험	8	3.01	.31	-4.108
		통제	8	3.56	.28	

* $p < .05$, ** $p < .01$

자녀양육 스트레스의 사전검사 점수에 있어서는 실험집단($M=3.73$, $SD=.45$)과 통제 집단($M=3.83$, $SD=.48$)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동질집단임을 의미하다. 반면, 자녀양육 스트레스의 사후검사에서는 실험집단($M=2.95$, $SD=.24$)과 통제집단($M=3.83$, $SD=.40$)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의 평균 차이 검증 결과를 각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특성으로 인한 자녀양육 스트레스의 사전검사에서는 실험집단($M=3.93$, $SD=.53$)과 통제집단($M=4.08$, $SD=.50$)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후검사에서는 실험집단($M=2.94$, $SD=.15$)과 통제집단($M=4.10$, $SD=.32$)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녀의 특성으로 인한 자녀양육 스트레스의 사전검사에서는 실험집단(M=3.53, SD=.24)과 통제집단(M=3.58, SD=.28)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사에서도 실험집단(M=3.01, SD=.31)과 통제집단(M=3.56, SD=.28)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어머니들이 느끼는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사례 1> 우리 아는 중국 학교 다니다 왔어요. 그래서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지금도 잘 못따라가요. 간단한 말은 알아들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거예요. 내도 잘 모르는데... 외래어도 많이 있고... 학원에 보낼 형편도 안되고...
- <사례 2> 우리 아는 요즘 사춘기예요. 오늘은 엄마한테 다정하게 대하면서 정상적으로 대화가 되니까 기분이 좋은데, 어떨 때는 내가 많이 아플 때도 문을 꼭 닫고 말도 안하고, 재도 속상한게 많아서 그런지... 내가 많이 부족해가지고 내가 학교를 잘 안가요. 말투도 저쪽 말투고... 친구들이 문자를 보냈는데 어떻게 보다가 들어서 안좋은 대화가 오가서 내가 한번 뺏어서 봤어요. 너희 부모가 북한 사람이고... 막 그런 걸 써놨더라고 아주 거북하게... 그래 내가 개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가 누구냐, 모를수록 네가 조금 가르쳐주고 그러는게 좋지 않냐, 아를 이렇게 하면 나는 너 부모를 찾아가야겠다, 이거는 네 부모가 바라지 않는 쪽에서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아닌 것 같다 하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더라고요. 너는 OO이보다 낫으니까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집에도 놀러오고 하니까 예 하더라고요. 근데 학교를 안가도 애들이 알아요. 너네 엄마는 북한 사람이라며... 그래서 난 아예 학부회회를 안가요.
- <사례 3> 학교에서 그런 아이들 노래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걸 잘못하면 아들 수다 어간에서 밀리나봐요. 그래 집에 와서 노래를 귀에다 꽂고 연습하고... 그니 공부 지장이 많지... 밤에도 귀에 꽂고 자고... 이제 거의 한달이 그런거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니 피곤해하고... 선생님이 집에 무슨 일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거에 너무 집중해요.
- <사례 4> 우리 아는 늦게까지 전화가 와요. 학교에서 오면 밤 11시까지 미치게 전화가 와요. 카카오톡도 하고... 이전에는 엄마도 도와주고 거들어주고 했는데, 이젠 그게 없어요. 불러도 대답 안해요. 그래서 싸움도 많이 해요. 교회도 안갈라해요. 속되집어놓고... 점점 더해요. 엄마를 거들떠도 안보니까 아주 알미워요.
- <사례 5> 아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두려움이 들어요. 한국 사회가 낯설고 너무 모르는 것도 많고... 우리 아는 천원에 세 개짜리 빵 밖에 몰라요. 토스트가 뭔지도 모르고... 내 친구는 캐나다 갔어요. 큰 아를 북한에서 낳는데..여기서 왕따를 많이 당해서... 캐나다 가면 왕따는 안당한다 하더라고요. 북한에선 못먹어서 그렇지 맘은 편했어요. 꿈에서 맨날 고향가서 헤매요.

2. 자녀양육행동에 미친 효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어머니를 돕기 위한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 실시 전후의 자녀양육행동 변화를 살펴보면 <표7>과 같다.

<표7> 자녀양육행동의 사전사후 효과검증

변인	집단		<i>N</i>	<i>M</i>	<i>SD</i>	<i>t</i>
자녀양육 행동	사전	실험	8	2.22	.86	.000
		통제	8	2.22	.80	
	사후	실험	8	3.80	.42	8.258*
		통제	8	2.30	.72	
마음과 행동	사전	실험	8	2.25	.98	-.619
		통제	8	2.71	.83	
	사후	실험	8	3.84	.83	2.442
		통제	8	2.21	.80	
환경의 영향	사전	실험	8	2.29	1.59	.148
		통제	8	2.21	.79	
	사후	실험	8	3.92	.07	2.204*
		통제	8	2.50	1.11	
권위와 순종	사전	실험	8	2.58	.75	.067
		통제	8	2.54	.76	
	사후	실험	8	3.38	.22	2.061
		통제	8	2.58	.63	
훈육과 훈계	사전	실험	8	1.91	.47	-.221
		통제	8	2.00	.45	
	사후	실험	8	4.17	.07	13.147*
		통제	8	1.92	.17	
일관성	사전	실험	8	1.96	.85	-.059
		통제	8	2.00	.88	
	사후	실험	8	3.34	.07	2.995
		통제	8	2.12	.70	
모범	사전	실험	8	2.29	1.07	.049
		통제	8	2.25	1.00	
	사후	실험	8	3.84	.08	2.511
		통제	8	2.29	1.06	
대화	사전	실험	8	2.25	.88	.059
		통제	8	2.20	.85	
	사후	실험	8	4.13	.13	3.418*
		통제	8	2.29	.92	

**p*<.05

자녀양육행동의 사전검사 점수에 있어서는 실험집단($M=2.22$, $SD=.86$)과 통제집단($M=2.22$, $SD=.80$)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동질집단임을 의미한다. 반면, 자녀양육행동의 사후검사에서는 실험집단($M=3.80$, $SD=.42$)과 통제집단($M=2.30$, $SD=.72$)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자녀양육행동의 평균 차이검증 결과를 각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음과 행동에 관련된 자녀양육행동의 사전검사에서는 실험집단($M=2.25$, $SD=.98$)과 통제집단($M=2.71$, $SD=.83$)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사에서도 실험집단($M=3.84$, $SD=.83$)과 통제집단($M=2.21$, $SD=.80$)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환경의 영향과 관련된 자녀양육행동의 사전검사에서는 실험집단($M=2.29$, $SD=1.59$)과 통제집단($M=2.21$, $SD=.79$)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후검사에서는 실험집단($M=3.92$, $SD=.07$)과 통제집단($M=2.50$, $SD=1.11$)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권위와 순종에 관련된 자녀양육행동의 사전검사에서는 실험집단($M=2.58$, $SD=.75$)과 통제집단($M=2.54$, $SD=.76$)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사에서도 실험집단($M=3.38$, $SD=.22$)과 통제집단($M=2.58$, $SD=.63$)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훈육과 훈계에 관련된 자녀양육행동의 사전검사에서는 실험집단($M=1.91$, $SD=.47$)과 통제집단($M=2.00$, $SD=.45$)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후검사에서는 실험집단($M=4.17$, $SD=.07$)과 통제집단($M=1.92$, $SD=.17$)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일관성과 관련된 자녀양육행동의 사전검사에서는 실험집단($M=1.96$, $SD=.85$)과 통제집단($M=2.00$, $SD=.88$)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사에서도 실험집단($M=3.34$, $SD=.07$)과 통제집단($M=2.12$, $SD=.70$)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모범과 관련된 자녀양육행동의 사전검사에서는 실험집단($M=2.29$, $SD=1.07$)과 통제집단($M=2.25$, $SD=1.00$)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사에서도 실험집단($M=3.84$, $SD=.08$)과 통제집단($M=2.29$, $SD=1.06$) 간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대화와 관련된 자녀양육행동의 사전검사에서는 실험집단(M=2.25, SD=.88)과 통제집단(M=2.20, SD=.85)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후검사에서는 실험집단(M=4.13, SD=.13)과 통제집단(M=2.29, SD=.92)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어머니들의 자녀양육행동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 6> 이전에는 아가 반항하면 때렸어요. 몽둥이를 들어서 막 때렸는데... 지금은 막 때리기보다 배운대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렵기는 해도 아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례 7> 진짜 아 맘에 뭐가 있는 거 같아요. 이전하고 많이 달라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자꾸 소리를 치게 되는데, 그러면 아도 기분 나빠하고.. 진짜 나가 변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배운대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기도 해요.

<사례 8> 나는 인정받고 싶은 것 같아요. 자식들한테 엄마가 수고했다고... 근데 이전 바라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북한에서 나와서 여기에 오기까지 정말 여러 번 죽을 뻔 했어요. 북한에는 갈 수도 없고..내 그 땅에서는 죽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여기서 힘들게 키와도 고마워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새긴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전 바라지 말고 그냥 내 할 일만 해야 할 것 같아요.

<사례 9> 애는 예쁜데... 그냥 제 상황이... 아빠도 없고 공부도 해야 하고... 애가 짐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나 때문에 우리 OO가 잘못 자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내가 그러면 안될 것 같아요.

<사례 10> 저는 성격이 격해요. 그러다보니 아 맘을 볼 겨를이 없어요. 당장 내 눈에 거슬린다면 사정 안봐요. 집에서 아하고 할 때는 성격을 고쳐야 할 것 같네요. 이제 조금 생각하게 되요.

3. 부모역할만족도에 미친 효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어머니를 돕기 위한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 실시 전후의 부모역할 만족도 변화를 살펴보면 <표8>과 같다.

〈표8〉 부모역할만족도의 사전사후 효과검증

변인	집단	<i>N</i>	<i>M</i>	<i>SD</i>	<i>t</i>	
부모역할 만족도	사전	실험	8	2.33	.84	-.357
		통제	8	2.41	.70	
	사후	실험	8	3.22	.45	3.954*
		통제	8	2.50	.68	
부모역할 수행	사전	실험	8	2.22	.74	.115
		통제	8	2.18	.60	
	사후	실험	8	3.18	.51	3.528
		통제	8	2.29	.61	
부모-자녀 관계	사전	실험	8	2.51	.93	-.130
		통제	8	2.56	.78	
	사후	실험	8	3.26	.39	2.008*
		통제	8	2.74	.73	

* $p < .05$

부모역할만족도의 사전검사 점수에 있어서는 실험집단($M=2.33, SD=.64$)과 통제집단($M=2.41, SD=.70$)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동질집단임을 의미한다. 반면, 부모역할만족도의 사후검사에서는 실험집단($M=3.22, SD=.45$)과 통제집단($M=2.50, SD=.68$)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부모역할만족도의 평균 차이검증 결과를 각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역할 수행의 사전검사에서는 실험집단($M=2.22, SD=.74$)과 통제집단($M=2.18, SD=.60$)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사에서도 실험집단($M=3.18, SD=.51$)과 통제집단($M=2.29, SD=.61$)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자녀 관계의 사전검사에서는 실험집단($M=2.51, SD=.93$)과 통제집단($M=2.56, SD=.78$)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후검사에서는 실험집단($M=3.26, SD=.39$)과 통제집단($M=2.74, SD=.73$)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 가정 어머니의 부모-자녀 관계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 11> 남편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온지 4개월 만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나도 죽을라고 차에 두 번이나 뛰어들어갔는데 죽지는 않고 부딪히기만 했어요. 우리는 금슬이 좋았는데, 그래서 내가 정신을 잃고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장례식도 저는 못봤어요. 눈에 자식도 안보였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OO이가 맨날 울었어요. OO이가 편도가 아팠는데, 2년 동안 혼자 항생제를 먹고 있었어요. 그것도 난 몰랐어요. 병원갔더니 왜 엄마한테 말 안했다고 OO이가 엄마한테 말할 형편이 안된다고... 어린 것이 일찍 철들었어요. 이제 정말 아만 바라보고 살아야할 것 같아요. 새끼가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니까 믿어야죠.

<사례 12> 마트 가서도 나랑 같이 안갈라고 해요.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도 나를 창피하게 해요. 내가 먼저 시비쳤다 하고... 원래 꼭 같이 자고 했는데... 다시 나를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도하고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교회가면 맘은 편해요. 그래도 요즘은 OO이와 잘 안싸워요. 내가 이를 이해하는 마음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사례 13> 예수님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랬는데... 아마 자식을 위해서는 할 것 같아요. 부모가 뭐든지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특별하게 자식한테 이래 하는 것도(자식과 갈등이 있는 것이) 뭐가 있지 않겠나, 내 잘못이... 그래서 지금 하나님한테 내 죄를 용서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정을 위한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연구자가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위한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본 연구의 개발 방향은 부모와 교육자간 그리고 부모 간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부모들을 적극 참여시키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적 측면과 양육 실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상담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다. 이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모 간, 부모와 교육기관 간의 상호작용을 격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소집단 토의가 부모들이 그들의 경험을 나누면서 만족감을 느끼고 서로에게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것이며(Heinicke, Carlin, & Given, 1984; Kelly, 1981; Powell, 1986), 또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이 부모 내면의 문제를 다루는 상담

의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김진이, 2006; Doherty, 1995; Harman & Brim, 1994; Hemmeter & Kaiser, 1994). 실제로 최근 다문화 상담연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06년 이후로 다문화 가정 및 자녀세대에 대한 연구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박영희, 2012; 임은미·정성진·김은주, 2009).

둘째,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 가정 어머니들의 자녀양육 스트레스는 감소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의 특성으로 인한 자녀양육 스트레스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자녀의 특성으로 인한 자녀양육 스트레스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부모 자신의 내적 성찰을 통해 자녀양육 스트레스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한 결과이다(이랑, 2003; 정희정, 2009; 채경선, 2006).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부모 자신의 내적 성찰은 물론, 이 과정에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어머니들이 느끼는 자녀양육 스트레스는 남한의 사회배경 속에서 더 극대화될 수 있다. 남한에 도착한 후 북한이탈주민들은 고도의 산업화, 정보화된 자본주의 경제 체제로의 급격한 이동으로 인한 문화적 충격을 경험하게 된다. 남한은 자유경쟁 체제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지만, 북한은 공동작업을 통하여 공동의 분배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창의성과 성실성으로 집단에서 뛰어난 행동이 오히려 자아비판, 상호비판, 총화 시간에 좋은 비판거리가 되는 문화이기 때문이다(허수진, 2010). 즉, 국가가 직업을 정해주고 상부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던 북한에서의 생활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곧 자기의 노동력을 상품화시키는데에 혼란을 경험하면서 심리적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다.(안인희, 2012). 실제로 북한을 탈출하여 천신만고 끝에 남한으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삶은 그들의 기대만큼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며 무시와 냉대, 무관심 등으로 인한 우울증과 부적응 등으로 자살하는 탈북자가 늘고 있다(조선일보, 2008, 2. 14).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원조가 아니라 상호관계 또는 상호참여의 관점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여 하나원에서 지역사회에 편입한 후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지역교회에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남한에서의 삶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대해 함께 나누고, 실제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 가정 어머니들의 자녀양육 행동은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환경의 영향, 훈육과 훈계, 대화와 관련된 자녀양육행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마음과 행동, 권위와 순종, 일관성, 모범과 관련된 자녀양육행동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환경의 영향은 가정생활의 구조, 가족의 가치관, 가족의 역할 인식, 가정문제의 해결 방식, 실패에 대한 가족의 반응, 그리고 가족의 내력 등 가정환경이 자녀양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며, 이 모든 것의 핵심이 바로 이 가운데 하나님을 두는가의 여부이다(Tripp & Tripp, 2001).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교회에 가는 이유가 주로 재정적인 문제이거나 단순히 자신을 도와준 사람이 기독교인이라서 혹은 마음이 공허해서 교회에 출석하기는 하지만, 이 기회를 통해 그들이 참 신앙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훈육과 훈계는 자녀양육의 보조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양육의 수단이며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 잘 깨닫도록 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방법이다(박은성, 2003; 박효숙, 2002).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어머니들에게 자녀양육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과 방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화와 관련하여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의 목표는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어야 함을 인식하였다.

본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어머니들은 자녀의 행동에서 마음의 문제를 읽고 마음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가지는 권위의 의미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는데,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일반적으로 북한 사람들은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는 주체사상의 근본 진리와 김일성 부자에 대한 우상화 교육을 통해 남한 사람들과는 다른 이질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허수진, 2010). 따라서 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더 크고 높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어머니들은 부모의 권위가 가지는 본질적인 의미를 인식하고, 부모가 자기만족이나 즐거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녀를 돌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자녀를 일관성 있게 양육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

을 분석하고, 자녀를 일관성 있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와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적인 목표와 원리가 자녀양육에 적용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반영되는 부모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특히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넷째,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 가정 어머니들의 부모역할 만족도는 증가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역할 수행과 관련된 부모역할 만족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부모-자녀 관계와 관련된 부모역할 만족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 가정 어머니들은 부모와 자녀의 존재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살펴보고, 부모-자녀 관계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어야 하며 그 관계를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위한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에 대한 본 연구의 결론에 기초하여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교회는 북한이탈주민 사역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사역은 대부분 교회출석을 전제로 한 경제적 지원을 기초로 신앙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 교회는 전도와 교회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북한이탈주민 사역에서 그들의 본질적인 마음의 변화 및 신앙에서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체제를 수립해야 한다. 실제로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어머니 중에서 체계적인 성경공부를 하는 사람은 없었으며, 그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은 돈을 더 많이 주는 교회로 옮겨다니고 있고 특히 이단교회로 많이 이동하는 실정이라고 하였다.

둘째, 남한에서 자녀양육을 하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연구들은 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극복하여 남한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연구들이다. 이는 그만큼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해서는 상담적인 접근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상담의 형태 및 상담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 적응 및 자녀양육에 실제적

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적인 접근을 통해 남한과 북한의 사상적 통합을 연구하는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독일 통일은 ‘정치·경제적 통합의 성공’과 ‘사회·문화적 통합의 실패’로 평가되는데, 결국 사회문화적 통합의 실패란 가치관의 이질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자도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을 통해 무엇보다 가치관의 차이를 크게 느꼈는데, 이러한 차이는 한 상황에 대한 연구자와 참여자의 공감력을 저하시켰다. 따라서 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제시하였고, 그 때에야 참여자들도 수긍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남한과 북한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개인주의와 전체주의 등 극단적인 사상의 대립이 수반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통일 이후의 진정한 통합을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하며, 지금부터 문화의 이질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향으로 통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극단적인 두 사상의 대립을 해소하고 이 두 사상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적인 사상이 제시되어야 하고, 이것이 기독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기독교적인 접근을 통해 인간이 만들어놓은 사상의 한계를 깨닫고 무한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세계로 그들을 초청함으로써 그들이 어려서부터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온 주체사상을 벗어나 본질적인 변화를 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은 실험집단의 수가 적었다는 점이다. 처음 연구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많은 교회들에 접촉을 시도했으나 신분노출 및 연구의 번거로움으로 교회에서 대부분 거절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연구에 대한 거리낌이 많았으나 연구의 필요성을 느낀 담당 사역자의 끈질긴 권유로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하나원이 아닌 실제 삶에서 자녀를 키우는 북한이탈주민 가정 어머니의 자녀양육과 신앙생활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강숙정 (2009). “새터민의 심리적 적응을 위한 셀프파워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 강재희 (2010). “새터민 유아 3명의 유치원 적응과정과 놀이의 특징: 입국 초기 하나원 시기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강태용 (2013). “탈북자를 통일시대에 북한(청진) 지역 셀교회 개척리더로 세우는 방안.”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 고은희 (2010). “집단미술치료가 새터민 아동의 남한 사회 적응에 미치는 효과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곽연실 (2008).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정에서의 종교의 역할 연구: 교회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북한대학원대학교.
- 권부균 (2010). “새터민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남한 사회 적응과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 김경미 (2012).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에서 적응경험.”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규식 (2012). “통일대비 새터민 청소년을 위한 기독교교육의 과제.” 『신학과 목회』, 38(11), 157-176.
- 김나연 (2012). “북한이탈주민의 지각된 스트레스 및 자존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차별감과 억제형 대처양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미정 (2011). “다문화가족의 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 김미정·정계숙 (2007). “유아기 자녀를 둔 새터민 부모의 양육 이야기.” 『아동학회지』, 28(1), 71-94.
- 김보영 (2008). “새터민 초등학생의 학교 적응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공회대학교.
- 김선화 (2011).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정책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 김영식 (2010).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개신교의 지원 프로그램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 김영희 (2006). “북한이탈주민 가족유형과 가족적응의 어려움.”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대학원.
- 김정인 (200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의 프로그램 만족도 분석·평가.”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종국 (2008). “새터민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김지현 (2008). “새터민 청소년의 문화적 통합을 위한 기독교교육과정 개발.”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 김진순 (2011). “기독교인 탈북자의 가정생활: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 김진이 (2006). “유아의 어머니를 위한 상담활용 부모교육(CUPEM) 프로그램의 효과.”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김현아·정성란 (2008). “새터민의 가족상담모형 개발.” 『상담학연구』, 9(3), 1333-1356.
- 김 훈 (2005).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정착과 한국교회의 선교.” 석사학위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 나현희 (2010). “새터민 청소년의 음악교육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노귀남 (2012). “새터민의 이방성 이해-소통을 위한 문화담론을 찾아서.” 『한국여성철학』, 61-95.
- 노용구 (2012). “새터민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해결을 위한 치료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개발과 효과검증.” 『한국사회체육학회지』, 48, 603-611.
- 문은주 (2012).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영유아기 자녀양육경험에 대한 어려움과 요구.” 박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박내석 (200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박선아 (2001).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정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박성연·이숙 (1990). “어머니의 양육행동척도 표준화를 위한 예비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1), 141-156.
- 박순영 (2012). “국내 북한이탈주민 선교와 그들을 통한 북한 선교전략 연구.” 석사학위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 박영아 (2010).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경험과 보육교사의 보육경험 실태.” 『유아교육연구』, 30(1), 197-223.
- 박영천 (2011). “다문화 사회의 사회통합적 기독교선교연구.”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 박영호 (2010). “새터민 청소년의 남한 사회 적응과 미디어 교육.”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 박영희 (2012). “한국 다문화 가정에 대한 기독교 상담 접근 방안.” 석사학위논문. 한영신학대학교.
- 박은미 (2009). “새터민 대학생의 남한사회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박은성 (2003). “기독교 교육의 주체로서의 가정에 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 박응임 (1995). “영아-어머니간의 애착 유형과 그 관련 변인.”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박정란 (2006). “여성 새터민의 직업가치와 진로의사결정과정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_____ (2009). “여성새터민의 자녀 돌봄과 일: 실태와 지원방안.” 『한민족문화연구』, 28, 97-135.
- 박정아 (2007). “새터민(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 박종윤 (2009). “북한이탈주민의 실태와 적응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박주현 (2010). “북한이탈아동의 부모관련요인과 문화적 지향성이 자아존중감에 미

- 치는 영향.” 『부모교육연구』, 7(2), 23-40.
- 박효숙 (2002). “현대 기독교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과 자녀교육의 방법.” 석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 박희도 (2012). “새터민 적응에 대한 지원정책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서보람 (2007). “새터민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음주행위: 사회적 지지와 음주기대의 조절효과.”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서종남 (2010). “결혼이민자 가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연구.” 『시민교육연구』, 42(1), 103-126.
- 서주연 (2006). “북한이탈주민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와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성태제 (2007). 『알기쉬운 통계분석』. 서울: 학지사.
- 신은철 (2008). “새터민 신앙 정착을 위한 한국교회의 방안 연구: 알파코스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 심우구 (2010).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선교 방안.” 석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 안연진 (2002). “북한이탈주민가족의 가족문화특성에 관한 질적연구.”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 안인희 (2012). “탈북 새터민의 남한적응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 안지영 (2001).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엄태완 (2012). “새터민 여성의 사회적 자본 및 지역사회통합과 우울의 관계.” 『보건사회연구』, 32(3), 92-121.
- 연미희 (1994). “한국 부모에 대한 P.E.T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적용성 평가.”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오선목 (2008). “한국교회의 새터민 선교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감리교신학대학교.
- 오종모 (2005). “국내 북한이탈주민 선교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 유동현 (2011). “새터민 청소년의 사회적지지 및 자아존중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유시은 (2010).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 영향 요인 분석: 7년 패널조사를 중심으로(2001년~2007년).”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윤현기 (2004). “북한주민의 종교의식 변화를 위한 선교전략.” 박사학위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 이 랑 (2003). “자녀양육태도 및 양육 스트레스에 따른 부모교육 요구: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이미선 (2011). “북한이탈 청소년의 한국사회적응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 석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 이양호 (2009). “새터민 정책 개선에 관한 연구: 경제적 자립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이혜경 (2003). “북한이탈주민 대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체험 연구.” 석사학위논문.

- 문. 이화여자대학교.
- 임은미·정성진·김은주 (2009). “국내 다문화 연구와 다문화 상담 연구의 현황.” 『상담학연구』, 10(3), 1291-1304.
- 장경영 (2009). “새터민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장주영 (2009). “새터민 청소년의 수학과 학습실태 분석 및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 장동신 (2006). “국내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교회교육적 대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세대학교.
- 전용현 (2005).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사회복지정책 연구: 민간단체와 정부의 네트워크 구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전춘애·박성연 (1998).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관련된 심리사회적 변인들.”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1), 95-105.
- 정병호 외 (2006). 『웰컴 투 코리아: 북조선 사람들의 남한살이』.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 정영환 (2009). “새터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역사교육 모형.”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 정희정 (2009). “성경적 상담을 활용한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 조미영 (2011).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영유아기 자녀양육지원을 위한 멘토링 과정 탐색.” 박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조복희·현은강 (1994). “한국부모의 부모역할 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2(5), 97-108.
- 조영숙 (2012). “미술치료가 새터민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영향: 조형활동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조원선 (2006).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응을 위한 기독교상담연구.” 석사학위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 조혜영 (2013).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유아교육기관 경험에 대한 탐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주은주 (2010). “새터민에 대한 지역사회주민의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 채경선 (2006). “기독교 부모의 자기성장을 기반으로 한 부모역할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채나리 (2012). “북한이탈주민의 문화변용과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 최광훈 (201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적응실태에 관한 연구: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 최대현·이인수·김현아 (2007). “새터민 아동, 청소년의 적응력 향상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아동교육』, 16(2), 277-291.
- 최동문 (2009). “북한이탈주민 정착적응 실태와 발전방안.”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 하선자 (2013). “다문화가족으로서 새터민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다문화가족정책과

- 의 비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한은주 (2012). “새터민과 함께 사는 것, 북한 선교의 첫걸음: 인천교구 새터민지원 센터 임순연 수녀.” 『사목정보』. 5(2). 27-29.
- 황정숙 (2009). “새터민 청소년의 남한 사회 부적응과 적응 방안 모색.”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허수진 (2010). “통일이후 북한선교 방안: 기독교 복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 뉴스앤조이, 2010년 12월 18일, “교회? 너무 북한 같아서 싫다.”
- 중앙일보, 2013년 5월 14일, “국민 피로감 키우는 떼다방식 대북 이벤트”
- 한국일보, 2008년 9월 7일, [탈북자사회 10년] 브로커, ‘필요악’인가
- Abidin, R. R. (1990).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The Stress of Parenting.”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 298-301.
- Crnic, K. A., &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 Doherty, W. J. (1995). “Boundaries Between Parent and Family Education and Family Therapy: The Levels of Family Involvement Model.” *Family Relations*. 44. 353-358.
- Harman, D., & Brim, O. G. (1994). 『부모교육의 원리와 방법』. 정문자(역). 서울: 교육과학사.
- Heinicke, C., Carlin, E. and K. Given (1984). “Parent and Mother-Infant Groups: Building a Support System.” *Young Children* 39(3). 21-27.
- Hemmeter, M. L., & Kaiser, A. P. (1994). “Enhanced Milieu Teaching Effects of Parent-implemented Language Intervention.” *Journal of Early Intervention*. 18(3). 269-289.
- Kagan, S. L., Neville, P. and J. Rustici (1993). *Family Education and Training: from Research to Practice: Implementation Plan. Center on Families, Communities, Schools & Children’s Learning, 14*. New Haven: Yale University.
- Kelly, F. J. (1981). “Guiding Groups of Parents of Young Children.” *Young Children* 37(1). 28-32.
- Powell, D. R. (1986). “Parent Education and Support Programs.” *Young Children* 41(3). 47-53.
- Sigel, I. E., & McGillicuddy-Delisi, A. V. (2002). “Parent Beliefs are Cognitions: The Dynamic Belief Systems model.” In M. H. Bornstein(Ed.), *Handbook of Parenting(2nd)*, 485-508.
- Tripp, P. D., & Tripp, T. (2001). *The Case for Kids: Discussion Guide for the Fourteen-Part Video Series on Parenting*. New Jersey: CCEF & Shepherd’s Press.

ABSTRACT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Effects of a Christian Parenting Education Program for Multi-cultural Families: based on North Korean Defectors

Hee-Jung Chung(Chongsh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e development of christian parent education program and the verifying of its effect in which mothers of North Korean Defectors with child could overcome conflict and stress that happen in rearing child in a different culture and pursue personal growth and development as a human and acquire knowledge and attitude and skill that is needed in proper rearing and education for their child.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nducted christian parent-education counseling program for 8 weeks after grouping 8 persons who is North Korean Defectors attending S church in Seoul. After finishing this program, T-test was executed for checking the effect of this program.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child-rearing stress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participating this program was diminished. Second, the child-rearing behavior of North Korean Defectors participating this program was positively changed. Third, the parent-role satisfac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was increased. In conclusion, the expecting effect and applicable pla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it suggests the direction about North Korean Defectors working in Korean church. The direction have to be changed from evangelism and church growth to settlement of systematic support structure which can make growth in their faith and change in their cohesive heart. Second, it gives practical help to North Korean Defectors families rearing child in Korea. This program supports adaptation to Korea society and child-rearing of North Korean Defectors families through counseling approach in view of mutual

participation. Third, christianity approach of this study will be foundation for South Korea and North Korea's unification macroscopically. Through this study, conflict of extreme ideology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will be solved and christianity could be suggested as a new replacement idea which can transcend this limitation.

Key Words: North Korean Defectors, Saetomin parent, multi-cultural family, christian parent-education, child-rearing

